

도내 기초단체장들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환영”

“비수도권 연대 전략 공감”

최경식 남원시장 “새 모델 제시에 무한한 찬사”

전춘성 진안군수 “기적에 가까워... 도전 추구”

황인홍 무주군수 “무주가 가진 모든 역량 보탬 것”

최훈식 장수군수 “전북의 하나된 여정에 협력”

도내 기초단체장들이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소식에 열렬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 “지방 도시 연대 전략 통해 새 모델 제시에 무한한 찬사”

먼저, 최경식 남원시장은 “올림픽 후보 도시 유치를 위해 그간 밤낮 없이 전국을 누비며 전북을 알린 김관영 도지사와 정강선 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인 여러분의 열정과 투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모두의 한계를 넘는 이번 선정 결과를 8만 남원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지방 도시들과 연대한 ‘비수도권 연대’ 유치전략에 적극 공감하며 “지방 도시 연대 전략을 통해 IOC와 세계에 올림픽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점에 무한한 찬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도 이날 군청 강당에서 열린 3월 청원월례조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期望을 뒤엎고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전 군수는 “올림픽 후보도시에 선정되기까지 전국을 누비며 전북 알리기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정강선 도 체육회장 등 관계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고도 했다.

이어 “진안군도 전북자치도의 올림픽 도전 정신을 이어받아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며 혁신을 추구하겠다”며 “진안군도 인프라 부족 등으로 61년만에 2026년 도민체전을 처음으로 개최된 만큼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 “무주군이 가진 모든 역량 보탬 것”

황인홍 무주군수도 “전북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는 역사적인 여정과 순간에 무주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데 큰 기쁨을 느낀다”며 “세계 도시들과 겨뤄 마침내 올림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무주군이 가

진 모든 역량을 보탬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군수는 “전북이 2036 하계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태권도와 펜싱, MTB 종목이 무주에서 개최돼 주목을 받고 나아가 전북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연대의 힘이 무주를 통해 빛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훈식 장수군수 “전북의 하나된 여정에 협력하겠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올림픽 국내 후보 지역으로 선정되는 역사적인 여정과 순간에 장수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데 큰 기쁨을 느낀다”면서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그간 밤낮없이 전국을 누비며 한계를 넘어선 전북의 잠재력을 알린 김관영 도지사와 정강선 도 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인 여러분의 열정과 투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림픽조직위원회(IOC)가 지향하는 지방도시 연대를 통해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대의원들을 설득한 만큼 장수군도 전북의 하나된 여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2036 전주 하계 올림픽이 전남·광주, 충청권, 대구 등 연대도시들과 협력해 추진되는 만큼 영·호남 교통에 이점을 가진 장수군의 모든 역량을 보탬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전문선 기자·장수=고판호 기자



완주중학교 축구대표팀 완주FCU15가 2025금석배 전국중학생 축구대회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정상에 등극했다.

완주FOU15, 전통의 축구 강호 증명

금석배 전국중학생 축구대회 우승... 2012년 우승 이후 13년 만에 정상 탈환

전북 축구의 명문 완주중학교 축구대표팀 완주FCU15가 2025금석배 전국중학생 축구대회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정상에 등극했다.

완주FCU15는 지난 주말 군산시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5금석배 전국중학생(U-15)축구대회와 2025 금석배전국중등(U-14)대회를 모두 평정하는 기염을 토했다.

1992년 시작돼 33년의 역사를 가진 금석배에서 1995년 창단한 완주FCU15는 2012년 우승이후 13년만에 정상을 탈환하는 등 30년에 걸쳐 다시 한번

전통의 축구 강호임을 증명했다.

또한 디펜딩 챔피언 U-14 유스컵에서도 작년 이어 2연패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완주FCU15는 이번 대회에서 지역라이벌인 이리FCU15와 결승전에서 만나 전반25분 상대 윤호상에게 선취골을 허용하였으나 전반 추가 시간 전지성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이어 후반 3분만에 김주환의 역전골 23분 홍성범의 마무리 해기골로 3대1의 화려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완주FCU15 강일찬 감독(44)은 “힘들

었지만 끝까지 믿고 따라준 그리고 이루어낸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고맙고 또한 자랑스럽다”며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U-15대회에서는 32개의 전국중등축구팀이 출전했으나 사상 첫 전북팀들간의 결승진출과 U-14유스컵에서는 23개 전국팀중 4강에만 전북 중등축구팀 3팀이 진출하는 성과를 보여 전북중등축구가 한국중등축구의 대세로 떠올랐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난 1일 통영에서 개최된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전주대학교 축구부가 우승을 기뻐하고 있다.

고창군, 유소년야구대회로 올 전국대회 시작 알리

세계대학경기대회 파견 태권도 국대 선발 등 개최 예정

고창군이 지난달 28일 제4회 고창고인돌배 전국 유소년야구대회를 열고, 올해 전국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대한야구위원회(회장 박순우)가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40개 팀 500여명이 출전해 새싹부, 연식품나무부, 꿈나무부, 유소년부 4개부로 나뉘 진행됐다.

대한야구위원회는 매년 고창에서 춘계, 추계로 두차례 전국대회를 치루며 선수, 가족 등 1,000여명이 고창군에 머물면서 다양한 소비로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고창군에선 올해 유소년야구대회를 시작으로 세계대학경기대회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대회 등 앞으로 13개 전국대회가 군립체육관, 스포스타운 등에서 치러진다.

심덕식 고창군수는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참가선수 및 가족 등 1000여명이 고창을 방문하는 대회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고창을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K리그 잔디, 국제 경쟁력 저하 우려”

프로축구선수협회, 개선 촉구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프로축구 K리그 잔디 개선을 촉구했다.

선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선수 보호차원에서 그라운드 잔디 관리에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장 잔디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될 경우,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특히 국제대회에서 한국 클럽과 국가대표팀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기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 축구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하나은행 K리그 2025 3라운드 경기에서도 열악한 잔디 상태가 문제가 됐다. 선수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뉴시스

K리그1 전북현대

내일 ACL2 8강 1차전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그2(ACL2) 우승을 향한 여정을 이어간다.

8강 상대는 창단 이래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호주 프로축구 A리그 멘 소속의 시드니FC다.

전북은 오는 6일 오후 7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시드니와 2024~2025시즌 ACL2 8강 1차전을 치른다.

지난 16강 전북은 포트FC(태국)를 합계 점수 5-0(4-0 승·1-0 승)으로 완파하고 8강에 올랐다.

전북은 하나은행 K리그 2023 정규리그 4위 자격으로 ACL2에 진출했다.

조별리그 H조에선 다이내믹 허브 세부FC(필리핀), 무앙통 유나이티드(태국), 슬랑오르FC(말레이시아)와 경쟁해 1위로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다.

16강에서 포트를 손쉽게 제압한 뒤, 8강에서 시드니와 준결승을 다룬다.

전북은 호주 클럽 상대 무패 기록에서 자신감을 찾는다.

지난 2010년 AFC 챔피언스리그(ACL) 16강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호주 팀과 9차례 맞붙어 4승 5무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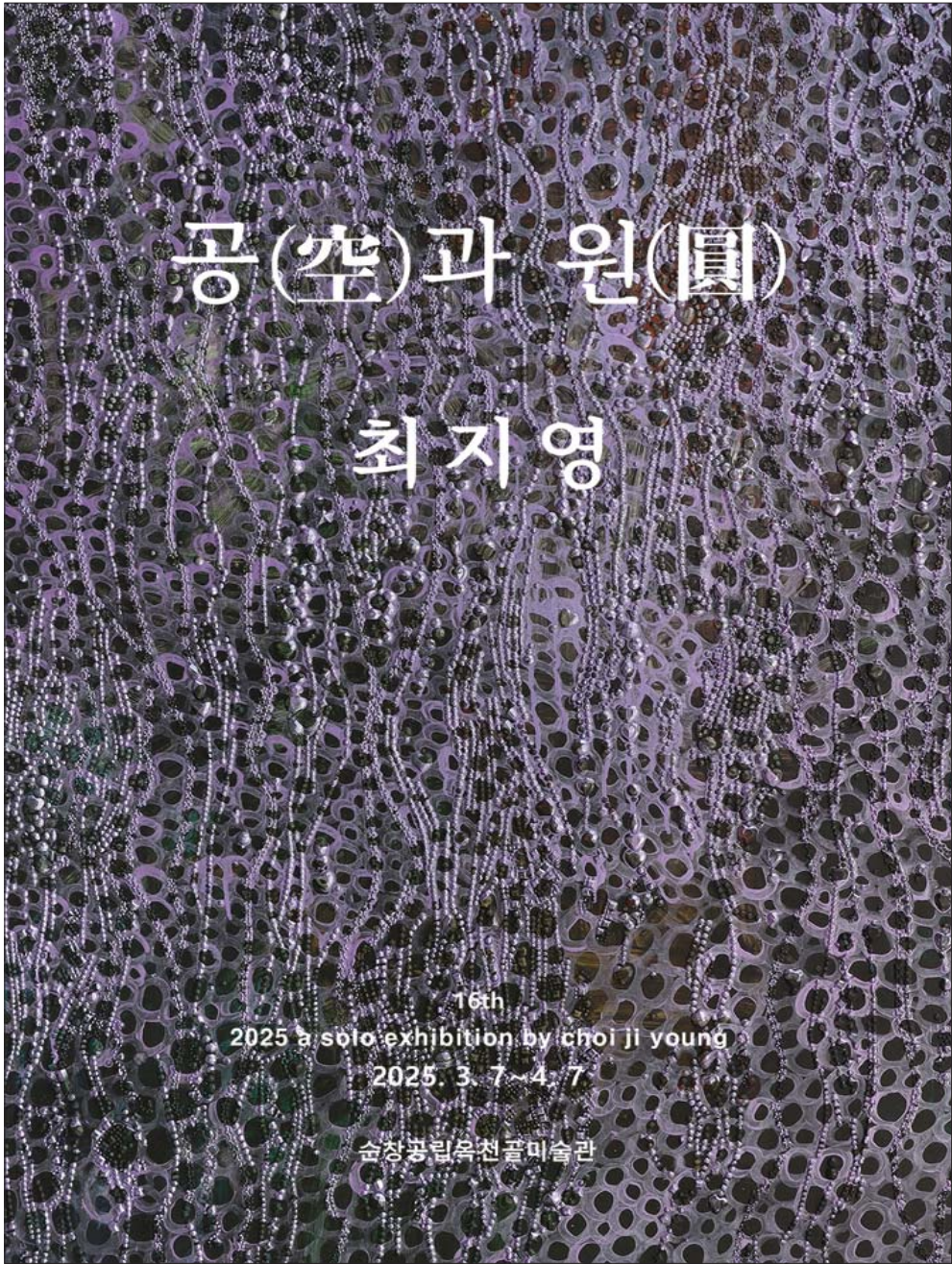
시드니와는 통산 4차례 맞붙어 2승 2무를 기록 중이다.

다만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전북은 올겨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출신 거스 포엣 감독을 선임하며 새판 짜기에 돌입했지만 잠시 주춤하고 있다.

전북은 이번 시드니전을 승리로 장식해 ACL2 준결승행 청신호와 ‘분위기 반동’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각오로 무장한다.

/뉴시스



공(空)과 원(圓)

최지영

16th
2025 a solo exhibition by choi ji young
2025. 3. 7 ~ 4. 7

순창공립미술관